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21개팀 1천355명 참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공식 엠블럼.

10월1일부터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참가종목이 확정됐다.

각 지방의 전래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KBS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민속예술축제에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에서 모두 21개팀 1천355명이 참가한다.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종목은 애오개본산대놀이(서울), 동래학춤(부산), 달성하반들소리(대구), 인천 전통판소리(인천), 광주월계상여소리(광주), 유성전민동상여놀이(대전), 고래잡이재현놀이(울산), 땡개안사출놀이(경기), 거북문지능복장치기(강원), 오타별신제(충북), 노성현 칠형제 두레매기(충남), 전주기잡놀이(전북), 순천낙안읍성두레놀이(전남), 구미 무을풍물(경북), 통영삼현육각(경남),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제주), 거점방인영감굿(황해), 평양검무(평남), 영변성황대제(평북), 돈돌놀이(함남), 애원성(함북) 등이다.

참가종목을 분야별로 보면 민속놀이 가 애오개본산대놀이 등 15개로 가장 많고 '무용'이 동래학춤과 평양검무, 민요가 달성하반들소리 등 3개, 농악은 구미무을풍물이 참가한다.

참가인원으로 보면 전주기잡놀이에 가장 많은 93명이 참가하며, 애오개본산대놀이에는 가장 적은 24명이 출연한다.

아울러 이 같은 본 경연 참가종목 외에도 전년도 우승작품인 갈곡들소리(전남)를 비롯해 우수영강강술래(전남), 포천메나리(경기), 광명농악(경기), 불토산영산재(경남) 등이 비경쟁 시연부문에 참가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5

사적으로는 원수(政敵)지만 공적으로는 도움을 준 이종성

이종성(李宗成)
(1692~1759)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이종성은 경주인으로 백사 이항복 선생의 6세손이다. 자는 자고(子高), 호는 오천(梧川)으로 흔히 장단 오무기 대신, 오천상공으로 불리었다.

할아버지 세필(世弼), 아버지 태좌(台左)에 이어 3대이어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이종성이 퇴임 후 장단 오촌(梧村)에 물러나 있었다. 오촌은 종족으로 가는 사신(使臣)이 경유하는 곳이었다.

하루는 이종성이 정원을 소요하며 말하였다. "오늘은 유척기(영조조의 영의정)가 오게 될 것이다 하니 자질(子侄)이 들었다. 그와 우리 집안은 서로 원수지만 어찌하여 우리집에 오셨습니까?" 이종성이 대답하였다. "공사는 사적인 혐의를 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얼마 지나자 동구 밖에 벽제(除)소리가 들리더니 유정승이 과연 이르렀다. 이종성이 병풍으로 마루 사이에 가로막아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물었다.

"공이 온 까닭은 무엇이었" 유척기가 대답하였다. "지금 변무사(辨務使-청나라에서 우리 조선이 멸망한 명나라를 숭모하고 있다고 트집을 하여 오므로 이를 변명하러 가는 임무를 띤 사신)의 임무를 띠고 영경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모함을 변명하겠소 하니 이종성이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

다. 내가 항상 제삿밥을 좋아하고 있어 아는데 이웃집에 재가(再嫁)한 여자가 있어 전 남편의 제사를 매우 정성스럽게 지내니 뒤에 얻은 남편이 시기하여 그것을 꾸짖었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잘못되었소 당신이 불행하게도 죽고 내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또 개가(改嫁)하면 당신의 제사를 이와 같이 지내지 않겠소 하니 그 남편이 그 말을 그럴싸하게 여겨 전 남편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나에게 제삿밥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사실을 모두 말하기에 나도 그 여자를 기특하게 여겼소 하였다. 이종성은 또 말하였다. 내가 금관조복(金冠朝服) 한 벌을 새로 지은 것을 공에게 줄 터이니 공은 그 뜻을 유의하기 바라오 하였다. 유척기가 그제서야 이종성의 뜻을 알아차리고 떠났다. 영경에 이르러 미리 금관조복으로 갈아입고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를 보니 황제가 노하여 물었다. 너희 나라

가 대보단(大報壇-조선시대에 명나라의 태조, 신종, 의종을 제사지내던 사당)으로 숙종31년 창덕궁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전하고 있음)을 세우고 숙복(公服)을 아직도 명나라 제도를 쓴다하니 너희 나라가 청(淸)나라를 받들면서 아직도 명나라 조정을 잊지 않으니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던 말인가 유척기가 이종성의 말대로 비유하여 대답하고 또한 일간 금관조복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명제(明制)의 공복이 이와 같으며 또한 옛날 근본을 잊지 못하므로 폐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건륭제가 금관조복이 화려하고 정제하며 패옥(佩玉)이 정그랑 정그랑 울리는 것을 보고 이어서 분부를 내렸다. 너희 나라가 본디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져서 옛 임금을 잊지 않으니 그 뜻이 가상하고 의관문물(衣冠文物)이 옛날부터 소중화(小中華)라 일컬어졌는데 그 의복을 보니 참으로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다.

건륭제가 특별히 상으로 천리나귀 한필을 하사하였다. 유척기가 사신의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종성의 뜻에 감사하여 그 당나귀를 오촌 어귀에 매어놓고 한 필을 새로 지은 것을 공에게 줄 터이니 공은 그 뜻을 유의하기 바라오 하였다. 유척기가 그제서야 이종성의 뜻을 알아차리고 떠났다. 영경에 이르러 미리 금관조복으로 갈아입고 청나라 건륭제(乾隆帝)를 보니 황제가 노하여 물었다. 너희 나라

(다음호에 계속)

포천시민대중 銘文 손진홍 詩人의 작품 선정돼

기원문 성격 상금 100만원 수여

포천시민대중 추진위원회는 대중에 새겨질 명문(銘文=기원문이라고도 함)을 지난 6월30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심사한 결과 손진홍 마흔문화회 회장이자 송우초등학교 교감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손진홍 회장에게는 지난 7월28일 시민대중 추진위원회 제3차 임원회의에서 시상상을 가졌으며 부상으로 상금 100만이 수여됐다. 명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문(銘文)

시인 손진홍

반월성 한소리 우렁차게 울렸도다
왕방이 수월을 열까 안으니
지정은 국명과 떨쳐 일어나고
명성과 축석령의 어울림 한마당에
이 땅의 흥령들 함께 일어나 축복하느니
산 자여! 이 울림의 날을 기억하여
한세와 영평천이 합쳐 흐르듯
일심오만이 하나같이 힘써
번영의 날갯짓으로 초석을 놓아라
그리하여 그 반석위에
光대한 포천으로 거듭나서
조선의 성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세워
그 영광 영원무궁케 할지니



포천시민대중 조각 조각도.

유니버설발레단의 '이야기발레'

포천반월아트홀 27일 오후3시, 7시30분 공연

유니버설발레단 이야기발레가 오는 8월27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공연 무대가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1.2부로 나뉘어 공연되며 1부공연은 미국 뉴욕시 발레단의 삼인안무가 크리스토퍼 휠튼의 2001년 최신작으로 부상당한 주역 발레리나의 배역의 때나 기 위해 젊은 무용수들이 애쓰는 모습을 에피소드로 넣고 무대 커튼 뒤 백스테이지에서 공연시 발아지는 일상을 발레로 코믹하게 보여주어 발레를 처음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공연은 동물의 사육제로 유

니버설 발레단이 어린이와 온 가족을 위해 만든 창작발레로 1992년 초연 이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단막발레 흥겨운 동물들의 퍼레이드가 서커스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져 볼만하다.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이며 6세에서 초등학생 및 학생은 50% 할인되며 포천반월아트홀 회원은 10% 할인하여 입장할 수 있다.

온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이야기발레 공연은 포천반월아트홀이 주최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이 주관하며 문화관광부, 국무총리복권위원회, (사)전국문화회관연합회 가 후원 및



유니버설발레단 이야기발레가 오는 27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오후3시와 오후7시30분 공연한다. 협찬하여 마련된다. 기타 자세한 알아트홀)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항은 031-538-2938 ~ 40(포천반월아트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찾아가는 미술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문화의 대중화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 전시하며 지역 15명을 포함한 국내 유명작가 70명의 작품을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문을 연다.

작품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시대의 풍경', '색채의 향연', '매체의 다양성', '미술속의 유머', '삶의 미술' 등 5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전시된다.

전시작품은 한국화, 회화, 조각, 사진, 공예 등 40~90여 점이며 부대행사로 지역 문화활동과 연계하여 현장 미술 이론 강

좌, 공연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시대의 풍경은 17-18세기 조선시대에 성립된 독특한 예술양식인 "진경(眞景)"을 화두(話頭)로 삼아 이 시대 한국현대미술의 횡단(橫斷)면을 조망해 보고자 마련된다.

색채의 향연은 뛰어난 색채감각을 바탕으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이 작품들은 미술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도 특히 그 색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매체의 다양성은 원로작가에 서부터 젊은 청년작가에 이르기

까지 오브제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색다른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모아 현대미술의 한 특성을 보여주자 한다.

미술 속 유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정신을 되새겨 본 풍자적인 작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진술하고 소박한 감성을 담은 작품 또는 냉소적인 시각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삶의 미술에서는 그러한 작품들과 더불어 전쟁과 분단의 상 황으로 인한 우리의 근현대사를 성찰하고 오늘의 현실 안팎에 드러난 고통과 고통의 흔적까지도 담아내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吟庚炎之節(음경염지절)

庚炎鏢石熱風生(경염삭석열풍생)
북다위는 돌을 녹이는 듯한 열풍이 이는데

樹木繁陰綠能淸(수목번음록능청)
수목은 그늘이 무성하여 푸른모양이 맑도다.

身浴寒泉無限樂(신욕한천무한락)
한천에서 목욕을 하니 한없이 즐겁고

詩吟幽谷不勝情(시음유곡불승정)
유곡에서 시를 읊으니 그윽한 정을 이길 수 없구나

茸茸臨草山觀快(융융농초산관쾌)
너울너울한 언덕의 풀 때문에 신하는 시원하고

獵獵江風野艇輕(렵렵강풍야정경)
렵렵한 강풍 때문에 이르는 기쁘도다.

大地蒸蒸如雲鼎(대지증증 Như운鼎)
대지는 쪼는듯한 불기마 같지만

循環節序勿違迎(순환절서물위영)
순환절서는 어김없이 맞이하게 되는구나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초대 詩

팔월 열 열새 달을 보며

이젠 기울어야 하리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봄

내 생에도 저처럼
슬프게 가득 찬 순간이 있었구나

팔월 열 열새 눈부신 내 고향 뒤에서
이미 고여 흐르기 시작한 내 눈물을 본다

그 정미야 언제까지는 몰라도
지금은 분명 만월 이후

제 살 깎으며
다시 제 몸 채우며
달이야 매번
이지러졌다 다시 차오르는 것이겠지만

달이 차오르는 것만큼
기우는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해야지
그리고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만월은 서글프다

그래도 만월은 서글프다...



여정은
마흔문화회 회원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9)

'해방', '광복'의 노래

'잊으라 잊을소냐! 해방의 이 날!/ 삼천만 가슴마다 넘치는 기쁨!/ 누구나, 한마음으로 힘을 다 하여/ 이보다 더 기쁜 날 다가 오도록' (더 기쁜 날 -독립정부 수립의 날)

1945년 8월 15일 일본 '쇼와' 왕이 연합국(미·영·불·소)을 향해 12시를 기해 무조건 항복 성명을 발표하자 우리 한반도는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서의 약속대로 일본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해, 8월 30일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처음으로 '광복의 노래'를 배웠다. 어서 나온 것이 '해방의 노래'였다.

1. "어둠과 괴로와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텅

네/ 동무야 자리 차고 일어나거나/ 산 넘어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아! 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린다"

2. "합승야 너 가거라 너와도 하지/ 설음이 눈물아 너와도 하지/ 동무야 자리차고 일어나거나/ 아득한 시베리아 넓은 벌판에/ 아! 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린다"

'해방가(해방의 노래)'는 가사를 공산 사회주의자가 작사하였다고 하여 1948년부터는 금지곡이 되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한반도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청소년들은 목이 터져라 하고 해방가를 소리 높여 외쳐 불렀다.

3절은 기억이 나지 않아 소개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한다.

1946년 1933년생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삼급학교(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며, 1947년에는 1934년생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졸업식노래가 없어 일본의 졸업식 노래의 곡(영국의 율령가 안...에다 일본의 가사 '호다루노 히카리 마도노 유카...'를 버리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대정환내 친구들...'이란 가사로 졸업식 노래를 불렀다. 1948년에야 비로소 윤석중 작사의 졸업식 노래가 처음 불려져 모두를 울면서 졸업식 노래를 부르던 생각이 난다.

졸업식 석상에서 애국가도 부르고 졸업식 노래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던

생각이 어찌 같다.

1948년 1934년생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당시까지도 답답교사들이 군정청(미국군정당국) 문교부 교과서를 사용하였으며, 윤석중 선생이 지은 동요집이 노래로 나와 힘차게 불려졌다.

일반 서민들은 여마차 노래를 불렀다.

'해방된 여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또 '귀국선'은 매우 인기 있는 곡이었다.

"돌아오네 돌아와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그렸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추어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내 고향 곳곳마다 누가 계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태극기 높이 달고 광복의 노래를 희망차게 부르던 모습이 어찌 같은데 해방동이가 환갑을 맞는 율령가 고 보니 감격의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율령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더 높이 달고 애국가도 더 힘차게 불려보기로 하자.

필자연락처 02-932-2434